

다산포럼

줄기세포 비망록



황 상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학사

‘황우석 사태’가 불거지게 된 한 가지 계기는 난자 문제였으며, 특히 연구팀 내 여성연구원들의 난자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2004년 2월 황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는 난자 242개를 썼다고 되어 있다.

그러던 차인 그해 5월 6일 ‘네이처’는 ‘한국의 줄기세포 스타들이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 교수팀의 여성연구원 2명이 연

구에 난자를 제공했다”라고 보도했다. 네이처는 그 근거로 여자대학원생 K씨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했다.

네이처는 “K씨가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영어 실력이 나쁜 탓에 오해가 생긴 것으로 난자를 기증한 사실이 없다며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지만 첫 인터뷰에서 난자를 채취한 병원 이름을 말했고 이미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난자 제공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지속되자 5월 27일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논문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은 기자회견회를 열어 “사이언스에 논문을 투고할 때 윤리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황 교수를 적극 옹호했다.

이후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국생명윤리학회 등이 난자 사용 문제에 대한 해명과 공개 토론을 촉구했지만 황 교수는 계속 묵살하는 태도를 취했다.

양동욱의 S스토리

마음의 마술



양 동 욱 심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면 일이 벌어질까하는 호기심에 빠져 냉큼 하나를 꿀꺽했다.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는 혀에 대자마자 사르르 녹았고 곧바로 입안이 상쾌해졌다. 약물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몇 분 정도 지난 후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필자는 그 의사에게 특담같이 달려가 따지기를 시작했다.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성에게도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약을 먹으라고 했느냐며, 그 약 때문에 마치 외출 타고를 하듯 떨면서 발표를 했다고用户体验을 토론했다.

비판적인 측이 아니라 최대 지원자이자 공동연구자인 제럴드 세튼 교수에게서 날아왔다.

MBC 피디수첩이 줄기세포 낱조 문제를 거의 밝혀가던 2005년 11월 12일, 세튼은 자신이 소속한 피츠버그 대학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20개월 동안 황 교수와 해운 공동연구를 윤리적 문제 때문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 뒤로도 문제가 없다가 강변하던 황 교수는 피디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을 방송한 이틀 뒤인 1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난자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세계줄기세포포럼 소장 등 교수직 이외의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두 여성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 한 명인 P씨가 찾아와 난자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연구원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난자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교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

다. 또 다른 여성연구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요컨대 황 교수는 연구원들의 난자 제공 제의를 거절했고 네이처 취재 시에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연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숨겼다는 것이다.

그 뒤 온갖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규명한 바에 의하면, 여성연구원 P씨는 황 교수 차로 함께 병원으로 가서 난자를 채취했고, 다시 황 교수와 실험실로 돌아왔다.

기고

국내 유일 힐링서비스 ‘창평현청’을 아시나요?



이 기 환 담양군 부군수

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민사무소와 달리 옛 한옥의 모습으로 신축하여 창평현청이란 현판을 걸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

창평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창평현의 중심지로 수많은 학자와 걸출한 정관계 인물을 배출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의병 활동으로 치열한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역사와 총질의 고장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곳입니다.

창평현청에 관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확히 이곳에서는 기존 창평면사무소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론을 수용하면서 창평면사무소와 창평현청을 접목한 창평현청이 탄생하게 되었습

물론, 창평면사무소라는 공적인 행정기구의 명칭 대신 창평현청이란 현판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점과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충분히 불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평현청은 민사무소 운영예산 이외에 단 한 푼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단 한 푼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방식의 건축물은 유기그릇과 같습니다.

이렇듯 공공디자인의 가장 큰 가치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슬로시티 삼치면 돌담길을 걸으며 답소를 나눠보시지요.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정부·여당, 문화전당 발목잡기 도를 넘었다

정부·여당의 아시아문화전당 발목잡기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당시 합의한 안은 문화전당이 독립할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남 F1 재앙 현실화 빛더미에 위약금까지

F1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전남 F1 조직위원회에 2015 F1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따른 위약금을 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

FOM은 F1 조직위가 지난해 11월 까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신용장을 외국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계약상 정해진 2년치 개최권료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라고 밝혔다.

이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

반면에 정부는 문화전당을 곧바로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운영하지는 주장인데 초기에 재정은 물론 콘텐츠마저 취약한 상황에서 부실운영되고

특히 문화전당 건립은 10년 전 논의가 돼 시작된 사업으로 이제 와서 논란거리가 될만한 특혜도 아니다.

명쾌한 근거 없이 막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지 개최권료가 무려 944억 원이나 되는 만큼 적지 않은 위약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남 F1대회는 지난 4년 동안 빛잔치의 연속이었다.

F1 조직위 측은 이날 말 FOM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בני 에클스던 회장 등 관계자들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하니 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위약에 따른 FOM 측의 소송전에도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Advertisement for 'Beating the Odds' (無等鼓) featuring a drum icon and text about graduation and success.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